

# 말들이 꿈꾸는 풍경화

이어령의 《말 속의 말》을 읽고

박형준

시인

내 마음 속에서 살다 간 말들, 때로는 순결하기도 했고 적요로웠던 창문들. 그곳에 비친 풍경들은 흐릿했고 나무 그늘에 휩싸여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나를 꿈꾸게 했던가. 오르동 속에서 익어가는 포도주나 기타의 공명처럼 향기와 울림을 지닌 말들을 나는 얼마나 열망했던가. 시골집에 내려간 어느 비오는 날, 뒷마루에 앉아 처마 밑에 떠오르는 빗방울을 보았을 때, 문득 그 작은 방울 속에 들어 있는 풍경들이 비의 무늬라는 생각을 했다. 순간순간 떠올랐다 꺼지는 무수한 빗방울 속에서 마당의 해당화, 낮은 집들의 지붕, 붉은 황토길, 그랬다! 그 동심원에서 머물다 가는 풍경들은 모두 불꽃처럼 환하디환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늘의 기억들이 뽕얇게 내리는 처마 밑에 태어나는 빗방울은 움푹 움푹 작은 물웅덩이를 이루며 풍경의 생채기를 싣고 그렇게 어디론가 흘러갔다.

## 일상의 말속에서 찾는 새로운 역사

동아일보에 연재된 바 있는 칼럼을 개작 보충한 이어령의 《말 속의 말》은 말들이 꿈꾸는 풍경화이다. 그것을 통해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말들의 시원(始原)을 들여다보는 행운을 잠깐 누릴 수 있었다.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신기할 것도 없는 일상의 말들을 갈고 닦고 때로는 뿌리를 캐고 그 줄기를 가려내 새로운 역사를 찾아가는 작은 통로의 화살표로 삼으려는 그의 글은, 이 거리에 폐품처럼 뒹굴고 있는 말의 먼지를 털어낸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감춰진 의미를 저인망 어선의 그물처럼 깊게 훑고 간 자리에는 파다파닥 살아 뛰어오르는 말의 푸른 등지느러미가 날아오를 듯이 펼쳐져 있다.

“무지개는 물의 지계로서 ‘물의 문’이라는 뜻이다. 무슨 용궁, 무슨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렇다. 현란한 색채로 아로새겨진 또 하나의 다른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돌아온 사람이 방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듯 이 비 개인 어느 날 우리 옛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이 그 무지개의 문물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가.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황홀한 꿈을 보았을까. 한번 무지개가 뜨거든 물어보아라.” (55쪽)



그가 1부 ‘말 속의 우리 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심성이 녹아 있는 말들의 탐색을 통해서 잃어가는 꿈을 복원시키려는 데 있다. ‘쓰레기’와 ‘씨레(시래기)’의 말의 어원을 통해서 쓰레기통에 갈 것이 밥상에 오르게 된다는 그의 표현대로 모두 27개의 우리말로 구성되어 있는 말들은 모두 텃말속에서 찾은 보물의 목록과도 같다. 그가 ‘철’이란 말처럼 아름답고 사색적인 말을 어느 외국 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은 얼마나 많은 울림이 들어 있는가.

“시간은 우리 밖에서 흐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강물이 아닌 것이다. 마치 향기로운 과일을 먹듯이 우리는 시간을, 나이를 먹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은 나의 피와 살 속으로 들어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 영원한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이 시간을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 나이 헛먹었구나.’”(10쪽)

## 말 속에 또다른 말의 의미

이어령은 이 사라져가는 말 속에서 현대 문명인의 생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식 생활인 ‘no season’의 철없는 생활이 ‘시간과 장소의 평등화’를 놓고 역사의 시간차와 지역차라는 두 개의 차이성마저도 환경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흡수해버렸다는 부아스틴의 말을 빌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간을 보고 느끼는 마음이 자취를 감추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람은 너무 뿌리 쪽으로 가도 현실성이 없고 너무 이파리 쪽으로 가도 허전해서 못 산다. 동질성과 이질성의 그 사이에 바로 가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신기할 것도 없는 일상의 말들을

갈고 닦고 때로는 뿌리를 캐고

그 줄기를 가려내 새로운 역사를

찾아가는 작은 통로의 화살표로

삼으려는 이 책은 꿈꾸지 않는 말,

굳어가는 말들을 위한 제사이자

축문(祝文)이다. 그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말들의 씨앗을

우주에 뿌리는 행위이다.

지가 있다. 무수한 가지가 있다. 다양성, 그러면서도 하나하나의 나뭇잎을 꼭 끌어안고 있는 튼튼한 끈—이 한 가지 의식이 때로는 배타성이나 폐쇄적인 사색 당쟁을 낳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정(情)이 많은 한국인들을 만들어 냈다. 뿌리와 잎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인의 균형 감각도 뛰어나다.”(74쪽)

‘마치 한 가지라’는 어원을 지닌 ‘마찬가지’를 풀이하면서 그가 내보인 이 한국인관은 책 전체를 관류하는 물줄기로서 존재한다. 하나하나의 나뭇잎 사이에 가려져 있는 한 가지를 찾아내는 마음과 시선이 바로 한국을 지켜 오고, 한국인을 한 동족으로 이어온 이념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무심히 쓰고 있는 일상의 말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낯선 얼굴들이 있고, 한국인이 함께 만들어온 그 입김과 눈빛이 있다. 그리고 벽 없이 드나드는 세계 문명의 바람 소리가 있다. 말하자면 말 속에는 또다른 말이 들어 있는 것이다.”

2부와 3부는 ‘말 속의 한자 말’과 ‘말 속의 서양 말’로 꾸며져 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빛나기’라는 부제를 달은 주(主)의 말풀이를 비롯, 2부에는 26개의 한자말이, 역시 ‘꿈꾸는 청바지족 시인들’이라는 부제를 달은 비저너리의 말풀이를 비롯, 3부에는 10개의 서양말이 독특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

허리 굽은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을 본뜬 한자의 노(老)를 풀이하면서, “청년은 정보에 민감하고 중년은 지식을 축적하고 노인은 지혜로 살아간다. 지식과 정보의 근원은 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 효의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로 성숙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라는 해석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촌철살인처럼 빛을 내고 있다.

## 살아 꿈꾸는 말들을 위하여

말들의 풍경은 창문과도 같다. 그것은 안이 내다보이는 거울이기도 하고 밖이 투영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창문은 동시에 벽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꿈을 꾸지 않는 말들로 가득 찬 사회는 불행하다. 꿈을 꾸고 있을 때 이 세계는 아직 살 만하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것은 이어령 식의 표현을 빌면 ‘낮빛’이 아닐까.

“낮빛이라는 말이 더욱 재미난 것은 그것을 그대로 한자 말로 옮겨놓았을 때이다. 낮은 얼굴이니까 안(顔)이고 빛은 그 뜻대로 색(色)이니까 낮빛을 한자말로 고치면 안색(顔色)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안색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보다는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늙은이라고 하면 낮춤말이 되고 노인이라고 하면 높임말이 되는 한자어 우위의 풍토 속에서도 낮빛이라는 말만은 희한하게도 안색보다 훨씬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내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43쪽)

한마디로 ‘표정 속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낮빛 속에서 우리 민족은 천 가지 만 가지 섬세한 감정의 굴곡과 변화를 읽어 내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들의 낮빛을 읽어내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속에 깃든 수천 수만 생명의 부침이, 마치 바다의 기억들이 화석의 금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말들은 떠돌고 우왕좌왕 이리저리 끌리며 거리를 달려가는 자동차들처럼 부딪치고 날카로워져서 딱딱한 서류 가방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굳어가고 있다.

이어령의 《말 속의 말》은 그 굳어가는 말들을 위한 제사이자 축문이다. 그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말들의 씨앗을 우주에 뿌린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보면 발붙일 곳을 찾아 떠나는 민들레 홀씨의 여행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사회를 말이 되는 사회로 바꾸려는 그 작은 화살표를 따라 함께 가보자.

동아출판사 / A5신 / 270면 / 5500원